

언론사: 역사와 철학의 만남과 어긋남

자유주의 언론철학을 중심으로*

문종대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행위는 사회적 실천행위다.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언론에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언론철학의 빈곤은 언론의 도구화를 촉진한다. 어떤 권력이나 자본도 언론의 본질적인 철학을 침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언론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자기 배반이다. 언론의 사회적 실천은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역사적이다. 언론이 역사와 만나는 지점이다. 역사의식 없는 언론은 곧 철학의 빈곤이다. 철학 없는 언론은 역사적 소명의를 가질 수 없다. 언론철학은 역사를 통해서 현실로서 들어난다. 역사적 현실을 통해 언론철학의 구체성은 들어난다. 언론철학과 언론역사 연구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철학이 언론역사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 살펴본다. 동시에 언론역사 속에서 언론철학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역사적 주체들이 어떻게 언론을 실천하는지, 그것의 언론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KEYWORDS 언론 철학, 언론 역사, 언론 자유, 언론 계급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귀머거리와의 대화

철학 없는 언론은 맹목이다. 지도 없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오늘날 길을 잃고 헤매는 언론은 철학의 빈곤이다. 철학이 빈곤한 언론은 서로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귀머거리들 간의 대화다. 자기들만 옳다고 고함지르는 형국이다. 자신들은 항상 옳고 자신들과 다르면 틀릴 뿐 아니라 옳지 않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바로 잡으려 한다. 틀리고 나쁜 상대는 존중해 줄 대상이 아니라 쳐부수거나 설득해서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철학의 본질은 휴머니즘이다.¹⁾ 언론 철학의 본질도 휴머니즘이다. 언론학이 철학과 만나야 하는 이유다. 언론에 대한 이해 없는 철학자들의 비판은 새로운 언론의 실천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보편적 가치가 특수한 언론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언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학이 언론 철학을 구축하기 위해선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언론 철학을 구축할 수 없다. 특수성이 보편성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학이 빈곤한 언론학자들이 각각의 개별성에 입각해서 언론 철학을 논함으로써 중구난방이다. 귀머거리들 간의 대화다. 무엇이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 실천인지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결여되었기에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언론 철학의 실천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언론 철학은 사회 구축적이고 역사 구축적이다. 사회는 휴머니즘을 배반하거나 거역하기도 한다. 이때 철학이 있는 언론은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저항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철학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할 때 언론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언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 권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언론이 도구가 되는 순간이다.

언론이 사회과학과 만나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언론의 사회적 실천이 사회 속에서 실현되거나 좌절되는 만큼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언론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언론 철학을 사회에서 구체화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과학적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 철학의 변화나 왜곡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언론의 휴머니즘에 대한 배신과 권력의 도구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회과학이 필요하다. 철학적 사유만으로 언론의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을 결여한 언론학은 언론의 도구화를 재촉했다. 언론학이 응용

1)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는 것'을 말한다. 인간으로서 참되게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설 때만 가능한데, '진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철학'이다. 결국 철학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다(여종현, 1997, pp. 278-279 참고).

학문이 되고 있다. 언론학이 실증주의로 경도된 이유다. 사회구조를 상수로 보고 현상으로 들어난 관계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각각의 현상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들은 왜 인과관계를 갖도록 구조화되었는가를 분석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이론이 사라지고 실증주의 분석만 남게 되었다. 언론학에서 논쟁이 사라진 이유다. 오직 명백한 현실들과의 관계만 위치지어질 뿐이다.

실증주의 언론학은 학문의 생산성도 높다.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들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한 언론학은 생산적이다. 구조를 상수로 보고, 구조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한 지배권력과 갈등도 없다. 오히려 권력과 자본은 항상 자신이 활용해야 할 자원일 뿐이다. 학문이 권력과 자본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다.

현재의 언론은 시간 지속성 속에 갇혀 있다. 현재화된 과거의 산물이다. 현재의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과거와의 대화를 위한 필요한 안내서가 철학에 기반한 사관이다. 사관은 과거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관점이자 미래의 관점이다. 사관이 다르면 역사를 보고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역사가 철학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다. 동시에 과거의 산물인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왜 현재의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사회과학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사고와 훈련 없이 역사적 인과관계를 추적하기 어렵다. 언론의 현재와 미래의 안내자인 역사로 들어가긴 위해 사회과학과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언론학은 그래서 이래저래 힘들다. 학제간 융합과 통섭에 기반한 열린 대화가 절실하다.

2. 새로운 언론 철학을 위하여

철학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철학이 다르면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철학의 현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권력에 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철학이 있다. 권력은 삶의 곳곳에 있다. 도덕으로, 법으로, 사상으로, 문화로 침투되어 있다. 철학이 또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이 바뀌면 철학도 바뀐다. 철학을 규정하는 권력이 바뀌기 때문이다. 동시에 권력이 된 철학은 세상을 규정한다. 철학은 천상에 있지 않다. 철학은 현실이다.²⁾ 현실이 역

2) 한 논평자는 이에 대해 저자의 신념에 불과하다고 비평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재방식이다. 따라서 역사 구속적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철학은 현재의 문제이자 과거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다. 철학

사의 구성부분인 한 철학 없는 역사는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역사없는 철학은 없다. 철학은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다. 현실을 구성하는 힘이자 과거를 규정하고 또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세상이 바뀌면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세상이 보인다. 그래서 철학은 살아 있는 생명이다. 끊임없이 해체되고 구성되는 현실이다. 새로운 언론 철학이 필요하다(김동민, 2013, p.310). 한국의 언론 현실이 변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 철학은 과거의 그늘 속에 있다. 언론 권력지형이 변화고 있다. 낡은 언론 철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론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자본주의에 기반한 대형화되고 독점적인 언론 권력의 철학 기반은 자유주의 철학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권력의 자유로, 실증주의는 객관주의로, 공리주의는 효율성으로 재구성되었다. 개인의 언론자유는 사회 속에서 불평등하게 실현되었다. 언론권력은 남용되었고, 객관주의는 언론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가치는 전도되었다. 객관주의와 언론자유가 이윤창출의 방편이 된 것이다.

이때 언론의 자유시장 논리는 강자의 논리가 된다. 거대화 되고 중앙 집중화된 언론 자본은 무엇이 진리이고 사실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이 되었다. 독점화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주된 창이 되었다. 그 창이 더럽혀지고 왜곡되면, 그 창을 통해 보는 세계는 진실이 아닐 수 있고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빈약하다. 권산언 복합체는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을 보도록 했다. 그런 언론을 통해본 세상은 정당화된 불평등과 왜곡된 옳음으로 반사되었다.

독점 언론의 거울에 비친 객관주의는 언론에 의해 선택된 객관주의다. 선택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언론의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가는 언론 권력의 표출 방식이다. 그것은 언론권력의 사실에 대한 선택 기준이자 세상을 보는 철학이다. 선택된 사실은 이미 가치를 전제로 한다. 선택에 가치가 개입된 것이다. 선택된 사실은 다시 실증주의라는 과학적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인과관계는 그들의 가치를 재생산하도록 재배치된다. 그들의 가치와 상반된 사실은 배제되고 그들 가치를 정당화 시키는 사실들이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다. 하나의 완성된 인과적 사실이 재구성되고 실증주의는 완성된다.

언론의 성공과 실패는 언론효과로 측정된다. 그것은 자본의 축적 또는 권산언 복합체

은 천상의 세계가 아니다. 철학이 없는 실천은 지도 없이 길을 가는 것과 같으며, 실천이 없는 철학은 허무하거나 용기 없는 현실 도피다. 철학은 가치에 대한 문제다. 따라서 논평자가 저자의 신념이라고 말한 부분 역시 타당하다. 가치를 갖지 않은 철학은 없으므로.

가 필요로 하는 여론 지배나 이데올로기 전쟁의 승리로 평가된다. 그들의 승리를 위한 작은 희생은 헌신자로 묘사되거나 아니면 악당으로 묘사된다. 그들에게 기능적인 희생은 헌신인 반면에 반하는 것은 범죄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그렇게 다시 정당화된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깊은 어둠속에 빠진다. 결과가 유용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고 행동도 정당화된다. 이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상업주의 언론을 정당화 해주는 논리다(김동민, 2013, p.328).

독점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위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가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금융자본이 득세하고,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은 피곤을 모르는 기계들로 대체되었다. 고도화된 산업기술은 고도로 전문화되었다. 독점화된 전문기술과 정보는 대중을 소외시켰다. 그와 함께 언론의 정보 독점력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언론의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자본에 고용되고, 전문지식 역시 자본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권산언의 한 축이었던 언론권력이 약화되고 산업권력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권산언의 한축이었던 시대에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렸다. 이때 뉴스매체의 중심은 신문과 텔레비전이었다. 이들은 뉴스생산을 독점했고 뉴스는 기자만 쓸 수 있었다. 뉴스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었다. 공급자 중심이던 뉴스시장을 바꾼 것은 정보산업자본이다. 정보 생산과 전달의 쌍방향성과 즉시성은 언론사의 뉴스 독점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시민이 사회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동민(2013, pp.330-332)은 언론 위기라는 담론이 자본의 관점이지 공중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미디어 자본에게는 위기일지 몰라도 공중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다. 김동민은 이제 상업주의에 기반을 둔 형식적 기계적 중립과 객관보도 언론 철학을 대체할 새로운 언론 철학과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민주적 언론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공중의 관점에서 언론을 새롭게 정립할 기회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언론의 '사적 소유를 넘어 공적 소유로 전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소유의 제한 및 공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의 물신 숭배를 벗어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며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동민, 2013, p.359).

3. 근대 언론과 자유주의 언론철학

철학은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다. 끊임없는 지양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구성적 과정에 있다. 산업화 초기의 자유주의 철학은 혁명적이었고 미래 지향적이었다. 새롭게 성장하던 시민계급의 사상적 무기였지만 자유와 해방의 공간을 만들어 주던 길 안내자였다. 비록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이었다 할지라도 자유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평등주의였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에 대한 권리 역시 평등하다. 자유주의 논리는 토지에 결박된 농노 해방의 철학이 되었고 동시에 자유로운 산업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자본가의 철학이 되었다. 자유주의 철학은 농노해방의 기초였고, 그것만큼 노동자들에게는 진보적이었고 혁명적이었다. 근대 초기의 자유주의 사상은 혁명사상이었고 과거를 비판하는 무기였으며, 미래를 안내하는 길 안내자였다.

자유주의 철학은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 각자가 주권자’(Locke/1689/1983, p.44, J.s.Mill, 1859/2008, p.31)라는 자기 주권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토대인 소유권의 확장된 개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간의 가치가 소유 개념으로 전환됨으로써 처분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³⁾

자신의 몸이나 정신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다. 각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것이라는 자기 소유권 개념은 언론자유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나의 사상과 신념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오감은 나의 소유다. 따라서 나의 모든 오감을 동원하여 나의 사상이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 소유권에 기반한 당연한 권리다. 자기 소유권에 기반한 자유주의 철학이 자유주의 언론철학의 토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기 소유권에 기반한 언론자유 크기는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들이 표현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한다. 개별적인 소유로 전환된 이런 능력은 개별차를 발생시킨다.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나고, 누구나 평등하게 언론자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은 사회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언론자유 철학의 실존적인 모습은 역사 귀속적이다. 언론자유 불평등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3)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자기 처분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유의 목적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노예계약은 자기결정권 밖에 있다고 말한다(문종대, 2014). 또한 자신의 신체는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유권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신체를 활용할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판매할 권리, 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획득한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으로 확장된다.

서 그 실존을 들어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학적이다. 또한 언론 자유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의 가치판단 문제는 언론철학의 문제다.

모든 발명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현실화될 때만이 역사적 사건이다. 문자의 발명도 사회 필요의 산물이다. 문자의 보편적 성격은 해방적이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계급적이다. 누구나 문자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문자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는 주체적인 것으로 전화되지 않는, 즉 나와 분리된 객체다.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본원적 능력을 가졌다는 면에서 누구나 주체적 존재일 수 있다. 이것이 문자의 발명이 갖는 해방적 측면이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주체적 존재와 객체적 존재로 재편된다.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역사적 주체들은 문자에 관한한 역사적 주체, 즉 문자라는 객체와 인간 능력의 주체가 통일된 새로운 주체다. 반면에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 인간들은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내재된 능력을 가진 주체지만 문자와 인간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면에서 객체다.

문자의 발명은 언론자유 의 시공간적 확장이다. 이 불평등은 역사 구속적이다. 문자 발명은 그것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그 필요는 통치를 위해서였다. 문자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지배권력의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세금을 거두는 등 통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⁴⁾ 통치자에게 있어서 문자의 발명은 주체적인 역사적 실천이었지만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자에 대한 종속이었다. 문자 해독을 독점한 지배계급은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데 문자를 이용했다. 이제 문자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문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객체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면에서 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은 문자 발전의 추동력이다. 산업화 이전 사회는 문자가 지배와 통치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산업화 이후는 문자가 생산력의 중요 수단이 되었다. 봉건제 태내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 및 상업자본가들은 지배나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산과 상품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를 필요로 했다. 이런 사회적 요구는 문자를 좀 더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확한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

4) 기원전 2000년대의 이집트에서 “글쓰기는 정부, 재정, 주문(呪文), 그리고 종교적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다. 파피루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상형문자를 초서체로 단순화함으로써 행정관리는 더욱 능률적이게 되었다”(David Crowley, Paul Heyer, 2007/2012, p.53).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성립되어 운영되려면 중앙 권력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국가 성립과 문자의 발명 및 활용은 그 궤를 같이 한다.

일한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통치를 위한 문자와 산업 및 상업을 위한 문자 간에는 사용 목적이 달랐다. 사용 목적의 차이는 상호간에 갈등을 발생시켰다. 지식독점을 통해 지배를 전일화했던 봉건 계급은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신흥 계급과 만나게 되었고, 이들 간에는 사회·정치·경제적 이해갈등이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문자사용 및 해독에 대한 독점에 기반한 봉건제 통치는 신흥계급에게는 족쇄였다. 따라서 신흥계급은 이들 족쇄를 거둬내기 위해 언론 자유가 필요했다. 봉건제 계급에게 통치의 수단이었던 문자가 신흥계급에게는 자유의 수단이자 생산수단⁵⁾이었다.

주체적 존재를 객관적 대상에 대하여 합목적적이거나 과학적 실천을 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면 문자사용은 언제나 주체적 행위다. 문자를 배우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한 인간은 문자사용에 있어서 주체가 된다. 지배계급은 문자를 합목적으로 활용했다. 신흥자본가 계급은 초기에는 생산과 상품판매의 수단으로, 그리고 지배계급이 된 이후에는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력 향상을 통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해 문자를 배우고 활용했다.

누구나 문자 활용에 대한 통제와 처분에 대한 전적인 권리를 향유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 계급은 그들 외에 문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약하고자 했다. 이것은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신흥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문자 사용과 활용에 대한 자유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신흥 계급은 문자를 포함하여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요청했다. 이것이 언론자유운동의 시작이다. 이제 문자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해방의 수단이 된 것이다.

신흥 자본가 계급은 문자를 생산수단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반면에 노동자 계급은 자신의 계급 해방을 위해, 즉 기존의 봉건적 착취구조와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폭로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기존 봉건체제에 대항한다는 면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는 일치했다. 그러나 봉건 체제가 무너진 이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대립하기 시작했다.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생산수단 및 이데올로기 수단으로서 문자 활용의 필

5) 문자의 활용이 생산 및 상품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면에서, 그리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생산수단이다.

요가 높아져 인쇄술은 빠르게 발전했다. 인쇄술은 세상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의 소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 시켰고,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을 집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쇄술은 인쇄술만으로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즉 지적 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쇄업은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화와 점점 더 학식 있는 시민집단의 융성이 인쇄술의 발전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David Crowley, Paul Heyer, 2007/2012, p.204).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권력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이전까지 문자에 대한 숭배는 이어졌고, 문자를 활용하여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나 언론인들에 대한 존경은 여전했다. 활자계 시대는 문자를 독점한 지식인들의 시대다. 이들은 아직 자본에 포섭되지 않았고, 자본은 아직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인쇄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본가이면서 지식노동자였다. 그들은 인쇄업이나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생산하는 노동자였다.⁶⁾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산업화 초기의 시대에 있어서, 지식 자본가와 그에게 고용된 지식노동자의 목적은 동일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모인, 즉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당(party)' 같은 조직이었다. 이윤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가 목적이었다. 비록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만 출판사나 신문사를 만든 목적은 이념이나 가치였다. 오직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을 위해 언론출판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기를 원했다. 상품소비를 통한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이나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하여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시장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다.

이런 시대의 언론은 가치가 시장보다 우위에 있었다. 언론시장은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가치나 이념이 같은 사람들의 목적은 같았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지식노동자는 지식 자본가를 위해 일했다. 지식자본가는 지식노동자를 위해 일했다. 그들의 목적은 동일

6) 이런 사람들을 지식자본가라고 개념 규정하고자 한다. 이들은 지식이라는 축적된 자본을 토대로 지식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이면서 인쇄업이나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본가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지식을 지식상품으로 생산하는 주체이면서 지식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식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이런 언론출판 자본가는 오직 출판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지식인 동지 그룹의 매개기능을 하고, 자신과 동일한 가치나 이념을 내포한 지식상품을 사회에 유통하는 데 더 큰 목적을 가진 다소 모순적인 계급이다. 한국의 경우 미군정기의 정파 신문들이나 1980년대 사회과학 출판사를 운영한 지식자본가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이었다. 가치와 신념이 같은 그들의 적은 동일했다. 그들의 가치나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었다. 그것의 가장 큰 적은 무엇보다도 국가였다. 따라서 지식자본가나 지식노동자가 동일하게 국가로부터의 언론자유를 추구한 것은 당연하다.

지식자본가나 지식노동자에게 있어서 이들 밖의 모든 대상들은 계몽과 교육의 대상이었다. 그들 밖의 사람들은 설득의 대상이었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계몽주의는 해방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성장하는 자본주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성장하는 산업은 교육받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계몽되고 교육받은 근대인들은 노동시장 속으로 급속하게 흡수되었다. 교육을 통한 근대의식의 확산은 곧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산업노동자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은 근대교육제도로 정착되었다. 새롭게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근대사회는 평등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해방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억압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의 시기가기도 했다.

4. 산업자본주의 시대와 언론철학

산업의 성장은 교육받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도시화를 촉진했다. 산업 발전은 곧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은 대량으로 소비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소비의 주체는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노동자였다. 생산과정에서 계급의 재생산구조는 소비과정에서도 재생산되었다. 즉 그들은 생산과정에서뿐 아니라 소비과정에서도 자본의 이윤을 실현해 주는 이중적 착취구조에 직면했다. 이런 이중적 착취구조는 계급갈등으로 전환되어 노동운동과 소비자 운동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다.

산업의 성장은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전을 필요로 했다. 곧 인쇄술과 제지술이 산업의 생산력 구성부분의 주요 부분이 되었다. 생산과정의 분업으로 인한 복잡성의 증가는 수많은 매뉴얼과 그에 따른 교육을 필요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과 상업의 발전은 많은 계약을 필요로 했고, 그만큼 행정상의 문서나 서류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전은 필요했고, 그것은 산업 생산력의 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⁷⁾

7) 동양에서 먼저 급속 인쇄술과 제지술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산력의 구성부분이 되지 못했다. 이들 인쇄술과 제지술은 오직 지배계급의 재생산을 위한 교육과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인쇄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메커니즘과 대량생산 메커니즘은 상품소비시장의 창출을 필요로 했다. 이런 자본주의 체제는 원료와 노동력의 공급지이자 상품소비시장으로서의 식민지 쟁탈전과 더불어 노동임금으로 지불되었던 임금의 재환수를 통한 선순환구조의 재생산이 필요했다. 이런 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한 것이 곧 새로운 시장인 광고시장이다. 교육받은 산업노동자군의 성장, 제지술 및 인쇄술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광고시장의 성장은 언론산업이 발전하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사회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식자본가를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 성격의 신문과 출판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윤이 목적으로 전환되면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본가와 언론 노동자 간에 이루어졌던 계급 연대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언론노동자가 자본가의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는 한 동지이지만, 이윤창출을 저해하는 한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광고시장과 독자시장의 이중적인 수입구조로 전환된 이후 언론자본가는 광고시장과 독자시장의 공분모를 중심으로 언론상품을 만들기를 원했다. 언론 사주는 광고시장과 독자시장의 충돌이 발생하는 언론상품 생산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언론노동자는 자신의 기사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보다 독자들에게 읽히기를 원했다. 산업자본과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질 때는 언론노동자와 언론자본가 간의 연대가 강화되지만, 국가권력과 산업자본 간 권한복합이 강화되면 될수록 언론노동자와 언론자본가의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언론자본가는 언론노동자의 노동과정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다. 그 시대에 언론노동자만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이 없었다. 언론인의 개인적 능력이 곧 언론상품의 질을 결정할 수 있었다. 각 개별적인 언론인들이 갖고 있던 취재력과 정보력, 그리고 기사작성 능력은 일종의 전문 언론인이 갖춘 진입장벽이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정보인맥을 동원한 취재능력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성 뿐 아니라 뉴스의 선택과 구성에 있어서 자율성과 통제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의 이해관계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자본가와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언론기자와 자본가 계급, 또는 국가와 갈등관계가 발생할 때 언론자본가는 본질을 들어냈고 그것은 갈등으로 전환되곤 했다.

제지술이 생산력의 구성부분으로 제대로 기능하고자 할 때는 인쇄술과 제지술로 인한 상품 자체가 다시 다른 산업의 생산도구나 원료로 이용될 때이다. 물론 인쇄술 자체의 발전도 생산력의 한 구성부분이 되지만, 인쇄술이 생산력의 구성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산업전체의 발전에 기능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언론자본가는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하고 신문사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언론상품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언론자본가는 성장하는 언론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을 관료제화했다.⁸⁾ 언론자본가는 조직의 관료제화를 통하여 편집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편집권을 위임받은 편집인은 언론노동자면서 동시에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리해서 수행하는 모순적인 계급이 되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언론인이 이제 편집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통제가 가능해졌고, 노노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가에 의한 분리와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노동과정을 통제하기보다 최종상품으로 구성되는 편성과 편집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언론자본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언론자본가는 뉴스를 생산하는 대리인의 등 뒤에서 대리 통치를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수 있었다.

교육받은 대중과 광고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들 대중과 광고시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가 필요했다. 대중이나 자본가, 그리고 권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것은 언론에 관한 철학을 바꾸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언론철학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외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면서 성장했다. 따라서 이념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통제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획득은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했고, 그 실천은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신뢰 및 자기 확신 없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주체적 실천이 필요한 만큼 개인이 가진 사상과 신념으로 구성된 의견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권력을 장악한 산업자본가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일으키는 언론을 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들의 해방의 수단이 되었던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로 무장한 언론실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볼 때, 언론자유 실천운동은 그 생명을 다했다. 언론인들의 언론활동에서 이념이나 가치를 탈색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언론윤리가 객관주의 언론 철학이다. 사실이 말하게 하라는 경험주의 철학은 주관론을 배제한다. 주관은 오직 개인적인 사건일 뿐이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보편성을 결여한 것이 된다. 오직 있는 그대로 보도하라는 것이다. 언론인이 보고 들은대로 보도하게 되는 경우 누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들려 줄 수 있느냐에 따라 보도 내용이 결

8) 관료제는 업무 예측성과 목표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규칙과 절차에 입각한 위계가 있는 지휘 명령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박희봉, 1998, p.208). 언론사도 규모가 커지면서 지휘명령체계를 갖춘 조직이 되고, 조직내 구성원의 역할을 특화 및 전문화시켰다. 업무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에 대한 평가체계가 좀 더 세밀해지고, 노동과정은 예측 가능하도록 관행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만들어졌다.

정된다. 결국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언론 노출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보도된다. 객관주의 언론은 자연스럽게 언론자본가 뿐 아니라 자본주의 지배계급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객관주의 언론철학은 언론인의 사회적 실천을 거세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위해서 실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언론인의 주체의식을 빼앗은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실천은 거세당했다. 주체의식을 빼앗은 것은 언론인의 사상과 이념을 괄호치라는 것과 같다. 사회과학적 실천은 주체 밖의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그 객체에 주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객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주체적 실천은 곧 객체화 과정이고 객체화 과정은 또한 주체화 과정이다. 객관과 주관은 상호 배제적이지만 객체와 주체는 상호 대립적이면서 상호 침투적이다. 따라서 서로를 변화시킨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도 아니다.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보이는 것 밑에서 작동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는 그 무엇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보이는 것만 보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속명론에 가깝다. 산업화 사회에 있어서 언론은 주체적 실천을 거세당하면서 사실을 전달하는 단순노동자로 그 지위가 하락해 가는 과정이었다. 사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의견은 기본적으로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다. 왜냐하면 현실은 언제나 모순투성이일 뿐 아니라 비합리적인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기 시작한 산업자본주의 언론은 언론의 주체가 거세당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지식 노동자로서, 그리고 언론의 숙련을 통해 가졌던 전문성이 박탈당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론노동자의 전문가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단순 노동자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5. 금융자본주의 시대와 언론철학

1930년대까지 산업자본주의는 원료공급지이자 상품소비시장으로 식민지 쟁탈전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고, 실업보험도 없었다(Samuel Bowles, Richard Edwards, Frank Roosevelt, 2005/2013). 그러나 식민지 수탈 구조를 기반으로 한 산업자본주의 성장은 곧 한계에 봉착했다. 수탈 구조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메커니즘은 상품 소비시장을 확대 재생산하지 못함으로써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를 경제공황

을 초래했다. 이런 경제공황의 탈출구는 과소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생계보험 등의 정부보조금을 증가시켜 소비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 시작은 루스벨트가 시작한 1932년 뉴딜정책이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수요창출정책은 누진세를 도입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높였다. 또한 노동조합을 합법화하여 임금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소비능력을 확장시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조업의 발전이 한계에 이르고, 자본축적의 위기가 도래하자 성장률은 낮아졌다. 그에 따라 세수도 줄어들었다. 반면에 공공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영국과 미국은 이자율을 급격하게 높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삭감했다. 동시에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복지 정책과 자본에 대한 통제를 철폐했다. 노동조합의 권한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은 유연화 되어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장하준, 2014/2014, p.95). 이후 케인즈주의 방식, 즉 공공지출에 토대를 둔 노동조직 계급들과의 타협에 바탕을 둔 자본축적 방식이 폐기되고, 산업자본이 화폐자본에 종속되는 시발점이 되었다(Chris Harman, 2007/2013, p.90)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금융규제완화 조치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각 나라마다 규제완화 또는 철폐의 길을 밟았다. 그리고 자본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거나 철폐되었다(장하준, 2014/2014, p.295).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통신기술(인터넷)과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거리의 종말'(death of distance)이 가능해지면서 세계화는 각국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국내경제의 자유화는 물론이고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제적 상품 유통, 인구 이동, 지식교환, 자유로운 투자자들이 이익을 좇아 이동했다.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출기회를 찾아 투기를 일삼고, 각종 인수, 합병, 민영화 과정에서 투기 이익과 수수료를 챙겼다. 전 지구적 경제통합은 전 세계의 기업들 간의 새로운 경쟁구조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상호 경쟁하는 처지로 내몰았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노사협약은 종말을 가져왔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빈부격차는 급격하게 늘어났다(Samuel Bowles 외, 2005/2013, p.232).

금융자본주의는 국경 없는 통신기술의 발전을 물적 토대로 한다. 국경 없는 통신기술은 현금이나 현물 이동 없이 금융자본이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금융자본

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재무장했다. 새로운 자유주의를 뜻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 이데올로기의 부활이다. 이런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개입은 경제왜곡의 주범으로 치부되고 시장실패에 대응해서 국가실패를 강조한다. 국가개입은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라고 규탄한다.

산업자본주의 체제에서 여론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던 독점언론은 강자였다.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던 시대에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제4의 권력이었다. 다양한 언론사를 소유한 독점언론기업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강자였다. 신자유주의의 강자 논리는 언론자본에게도 입맛이 맞았다. 성장하는 금융자본은 가장 확실한 광고주였고 또한 수입원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강자로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의 언론산업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글로벌화와 함께 복합기업으로서 성장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새롭게 성장하는 인터넷 산업은 기존의 언론권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뉴스를 개인용 컴퓨터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이인회, 2003, p.73). 인터넷 언론시장의 도입은 언론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도, 고가의 인쇄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었다. 오직 사무실과 컴퓨터 그리고 인력만 있으면 되었다. 거대 자본을 토대로 한 독점 언론의 시장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언론사들은 인터넷이 새롭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프라인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보급했다. 새로운 독자나 시청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기존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인터넷 시장으로 유출되었다. 세계시장으로 통합된 인터넷에서는 정보들이 넘쳤다. 그 결과 기존 언론사의 정보제공 및 생산 독점이 무너졌다. 인터넷상의 정보들만으로도 새롭고 경쟁력 있는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언론사의 정보경쟁력과 시장 지배력, 그리고 영향력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통합된 관문으로 한곳에서 검색엔진과 링크모음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합형 웹사이트인 포털사이트는 기존의 언론사가 제공하는 어떤 정보보다도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다. 기존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 유통의 독점력을 일시에 와해 시켰다. 오히려 기존 언론사들의 포털 의존도는 더 높아졌고,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 중 하나로 전락했다. 이제 다양하게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해야만 하는 위치가 된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새로운 언론자유 실천공간이다.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발휘되었다. 누구나 예전보다 쉽게 언론사를 만들 수 있었고 누구나 뉴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발언하도록 두라. 그러면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강자의 논리였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인터넷상에서 누구든 발언하게 자유롭게 두라는 해방의 구호가 되었다. 누구든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유주의적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언론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변화 시켰다. 정보 유통에 대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독점적인 취재력에 근거한 기자의 전문성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생산한 사람들이 그들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제 언론사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젠 그들 스스로 정보를 가공하여 대중들과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정분야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바로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이들 전문가들이 바로 전문기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기자들의 전문성이 타 분야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언론사의 전문기자보다 이들이 더 영향력 있는 뉴스를 생산하기도 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특성으로 모든 기사는 언제나 사회적 검증에 노출되었다. 정보유통을 독점하고 일 방향으로 뉴스를 유통시켰던 기존 언론사의 신뢰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인터넷은 뉴스 검증에 대한 정글의 장이 되었다. 누구도 검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기존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기존 언론사의 뉴스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권력의 감시자였던 그들이 이제 만인에게 검증받는 위치로 내몰렸다. 동시에 그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그들 각자가 작성하거나 만든 뉴스는 실시간 조회 수로 드러남으로써 고용주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노동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화시대에 가졌던 언론노동자의 노동 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수많은 감시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사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다양한 기사들이 인터넷에 노출됨으로써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시장은 공개시장이 되었다. 경쟁력이 없거나 언론자본에 저항적인 노동자는 퇴출되었다. 공개된 언론노동시장에서 검증된 새로운 노동자가 고용되었다. 그렇게도 언론이 찬양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드디어 언론시장에서도 실현되게 되었다. 언론자본가들은 이제 더 쉽게 언론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상의 신자유주의 명령은 해방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사회다. 누구나 기사를 작성해서 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모두가 모두에 의한 감시사회가 됨으로써 자발적인 자기검증을 수없이 진행해야 하는 조심스런 사회가 되었다.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모두가 모두에 의한 감시자가 되고 감시받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인터넷상에 노출된 모든 정보는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다. 이제 그 정보를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으로부터 감시받고 통제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의 일상은 분석되고, 그들 권력에 이용당할 수 있다. 빅브라더가 생긴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통제당할 수 있고, 맞춤형 정보가 우리도 모르게 전달될 수 있다.

정보 생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자본실현과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생산된 정보 독점은 더 강해져 가고 있다. 이제 정보독점을 언론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정보생산자가 쥐게 되었다. 독점적인 정보생산력을 가진 자본과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직접 유통시킬 수 있다.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감시사회에서 지배권력은 교묘하게 언론을 통제한다. 바로 명예훼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예는 자본으로 환취된다. 돈과 권력과 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명예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재생산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사회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감시받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나 명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도는 더 엄격한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항시적인 감시사회에서 각 개개인의 언론활동도 감시당하고 있다. 여전히 지배권력은 그들만의 은신처에서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 미디어 등장으로 모두가 정보생산자이자 수용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뉴스생산과 공급의 불평등은 인터넷에서도 재생산된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인터넷상의 활동은 또 다른 감시와 통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생산과 선택, 소비에 대한 권력을 가진 것만큼, 또한 그만큼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자유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 철칙이다. 신자유주의가 인터넷에서 일정부분 해방의 측면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지배의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이 해방과 진보의 수단이나 아니면 통제의 수단이나는 결국 계급투쟁의 결과에 의해서 결판날 것이다. 인터넷은 해방의 수단이면서 통제의 수단이다. 누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해방의 수단이 될 수도, 지배와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6. 역사와 철학의 만남과 어긋남

산업화 초기, 자연법에 근거한 언론 자유 철학은 해방적이면서도 진보적이었다. 이제 언론 자유는 하나의 기본권리가 되었다. 어떤 권력도 언론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선언은 기존 지배 권력에 대한 권력제한을 의미한다. 지배권력이 독점했던 특권이 모두에게 평등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등해진다는 것은 가졌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새롭게 성장하던 시민계급이나 노동자, 농민 계급에게 있어서 언론자유 사상은 해방의 철학이었다.

산업화 초기에 성장하던 부르주아 계급은 그들의 계급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사회혁명을 필요로 했다. 봉건귀족체계에 대한 개혁이자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었다. 따라서 두 계급간의 대립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봉건귀족은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주장과 사상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했고, 반대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그들의 사상을 널리 알려야 했다.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자인 근대적 개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정신의 주권자인 개인이 언론자유를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밀, 1859/2008, p.30)고 한 밀의 말은 자유주의 언론 철학을 가장 잘 들어낸 말이다.

새롭게 성장하던 산업자본가는 그들의 자본과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상이나 신념 및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인쇄술 및 전문지식으로 무장했다. 그들은 기존의 봉건귀족들과 경쟁할 수 있었고, 자본축적과 기술발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언론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물질 기반을 토대로 부르주아 계급은 그들의 사상이나 신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급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언론자유 철학은 지배계급의 철학이 되었다. 그들의 사상과 신념, 의견은 보편적인 사상과 신념으로 재구성되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 권리가 된 언론자유사상은 시민계급과 노동자 계급 모두에게 해방적이었다. 그러나 언론자유 실현수단 및 지적 기반에 대한 불평등은 언론자유 실현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언론자유사상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는 면에서 해방적이지만 사회구조 속에서 불평등하게 실현된다는 면에서 역사 구속적이다.

산업자본 태내에서 새롭게 성장한 정보산업은 자본축적에도 기여했지만 동시에 해방

적 요소도 제공했다. 정보산업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뿐 아니라 자유롭게 대사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정보 독점에 기반한 지배사슬도 이제 틈새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마트 미디어, 인터넷에 남는 개인 흔적들, CC카메라, 신용카드, 하이패스, GPS 시스템 등 정보 네트워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것이 투명해 지는 순간 결국 모두에 의한 모두의 감시사회가 되었다. 대중도 스스로 감시당하지만 권력도 감시당한다. 모두가 맨 얼굴을 들어내는 순간 평등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이다. 아직은 산업자본에 기반한 올드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더 많은 정보를 장악하고 또한 통제하고 있다.

해방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수단화 하는 권력이 있다. 동시에 그 권력에 맞서 새로운 사상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려는 저항 역시 존재한다. 언론사상은 해방의 도구이자 동시에 지배를 위한 도구다. 이것은 역사적 국면의 전환에 따라 결정된다. 누가 그 사상을 해석하고 지배하느냐의 문제다. 부르주아 계급에게 한때 해방의 수단이었던 언론자유는 이제 지배의 수단이다. 반면 노동자 계급은 언론자유 사상을 해방의 수단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려 한다. 이 측면에서 언론자유 사상은 여전히 해방적이다. 이것이 언론철학이 갖는 힘이다. 비록 역사 구속적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언론사상 연구는 그 실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언론사상의 본질적 모습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갖는 해방적 요소뿐 아니라 지배적 요소까지도 말이다.

참고 문헌

- 김동민 (2013). <미디어 오디세이>. 나남출판.
- 문종대 (2014).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5권 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44.
- 박희봉 (1998). 관료제 도구적 합리성과 실제적 합리성. <한국정치학회보>, 32권 2호, 한국정치학회, 207-212.
- 여종현 (1997). 휴머니즘의 탈 형이상학적 정초. <철학 사상>, 7,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387-435.
- 이인희 (2003). <뉴스미디어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삭 편집부 (1983). <변증법 입문> 이삭.
- Chris Harman(2007). Theorising neoliber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117, 정성진 역음/천경록 외 옮김(2013).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 David Crowley, Paul Heyer(2007). *Communication In History: Technology, Culture, Society*. 김지운 (역) (2012).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Ha-Joon Chang(2014). *Economics:The user's Guide*. 김희정 (역) (2014).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부키.
- John Stuart Mill(1859). *On Liberty*, 서병훈 (역) (2008). <자유론>. 책세상.
- Locke(1689).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al Governmenr*. 이극찬 (역) (1983). <통치론, 자유론>. 삼성출판사.
- Samuel Bowles, Richard Edwars, Frank Roosevelt(2005). *Understanding Capitalism: Competition, Command, and Change*. 최정규·최민식·이강국 역(2009). <자본주의 이해하기>, 휴머니타스.

투고일자: 2015. 05. 31. 게재확정일자: 2015. 09. 17. 최종수정일자: 2015. 09. 17

The Juncture and Disjuncture of Journalism History and Journalism Philosophy

Focusing on Liberalist Philosophy on Journalism

Jong-Dae Moon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and Media, Dong-eui University

Act of journalism is act of social practice. Therefore, judgment on its rightness must be a prerequisite. That is why journalism requires philosophy. Barrenness of journalism philosophy promotes journalism to serve only as an instrument. No power and money should intrude the essential philosophy of journalism. Journalism must secure its own value. Remaining silent when its fundamental value is at risk is to negate one's own value of existence. It is self-denial.

Social practice of journalism is assurance and realization of its essential value. Thus, it is historical. It is the juncture of journalism and history. Journalism without history leads to barrenness in philosophy. Without philosophy, journalism thus cannot uphold its historical mission. Journalism philosophy becomes a reality through the history. Concrete journalism philosophy shall come to light through historical reality. That is why conversation between journalism philosophy and journalism history is necessary.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journalism philosophy formulates and reconstructs itself within journalism history. At the same time, this research thoroughly examines how journalism philosophy concretizes in journalism history, how historical subjects have practiced journalism and how all these have projected themselves in journalism history.

KEYWORDS Journalism Philosophy, Journalism History, Freedom of Press